

남원시, 토종 예술단체 키운다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예술단체 지원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3억원 확보 이원국발레단 창작 '춤추는 춘향' '호두까기 인형' 등 6차례 공연



발레작품 '춤추는 춘향'을 선보일 예정인 이원국발레단의 공연 모습.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우리나라 대표 고전 '춘향전'을 발레로 재해석한 예술공연 등 관련 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한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관한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하반기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는 선정된 전국 20개 예술단체 중 남원은 '이원국발레단'이 포함됐다.

이원국발레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남원의 춘향전을 발레라는 현대적인 옷을 입힌 창작발레 '춤추는 춘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발레작품들을 갈라공

연으로 제작한 '사랑의 세레나데'와 해설과 함께 즐기는 겨울 고전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을 남원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6차례에 걸쳐 공연할 예정이다.

남원시와 협업할 이원국발레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노 이원국 단장을 중심으로 정상의 무용수들로 구성된 민간 직업발레단이다. 매년 150회 이상의 수준 높은 발레공연을 통해 발레의 대중

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춤추는 춘향 창작을 통해 남원시의 문화자산을 현대적인 예술 콘텐츠로 재창조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문화 다양성까지 확보함으로써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휴가철 감염병 예방

고창군, 이달까지 집중 방역·소독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들이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소독에 나선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기온상승 등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량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군은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계휴가철인 8월말까지를 '집중 방역·소독' 기간으로 정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1개 반과 읍·면 14개 반으로 소독반을 구성하고 해수욕장 및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및 마을권 571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 시간대에 맞춰 휴가철 방역소독에 나선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권 지역과 수풀이 많은 외곽이나 모기의 산란이 용이한 웅덩이는 연막소독으로 인구밀집 지역과 관광지는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효율성 있는 방역·소독에 나선다.

또 방역대책반은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위성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찾아 방역소독에 나설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신입 인재 채용

바이오소재분석 등 6일·홍보관리 12일까지 우편·이메일 접수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사장 최경식)이 바이오산업에 이력어갈 잠재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2024년 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집 분야별 채용 인원은 ▲바이오

소재분석(천연물 성분분석 및 표준화, 성분기반 소재개발 지원) 1명 ▲바이오인증평가 운영기획(시험검사 운영 기획 및 지원, 인증평가센터 시험분석 기술지원) 1명 ▲홍보관리(홍보기획·관리) 1명으로 총 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다.

응시원서는 바이오소재분석·바이오인증평가 운영기획 분야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홍보관리 분야는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채용 전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교육청 '계약심사제' 예산절감 효과 '톡톡'

입찰·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 적정성 심사...5개월만에 36억 절감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입한 '계약심사제'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이 해당된다.

도 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약 4개월 동안 총 267건(1472억원)을 심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대한 공사가 117건, 용역이 78건, 물품 계약 72건 등이다. 액수로는 1472억원이다.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사 사례와 견적가격을 현장에 공유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적절한 계약을 방지하는 사전적 감시활동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잔류농약 분석 3년 연속 국제 인증

수질 등 10개 분야 숙련도 평가

정읍시가 농산물 안전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한 '2024년 식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FAPAS)'에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이 3년 연속 기준치 이내 범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성분을 분석해 검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비교숙련도 테스트기관이다.

매년 전 세계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 기관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고 있다.

FAPAS는 잔류농약, 수질 등 10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평가대회다. 매년 전 세계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다. 올해는 전세계 57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평가기관인 식품환경연구청은 지난 5월 동일한 시료(오이 퓨레)를 각 기관에 배포했고 이를 받은 기관에서는 지난달 12일까지 잔류농약 분석 결과

값을 제출했다.

시는 오이 퓨레에 함유된 12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해 Z-score(표준점수) -0.2~0.5 이하로 모두 '만족'을 받아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Z-score는 평가에 참여한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출한 것이다. ±2 이하이면 만족, ±2~3 사이 하심, ±3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판정한다. 오차범위가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살충제 성분인 엔도설판 알파(Endosulfan alpha)는 0.0 판정능 기록, 최고 수준의 분석 정확도를 나타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7일 전의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한 뒤 시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결과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정읍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암소 번식용 → 비육용 전환 지원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지원...농가, 연말까지 신청

정읍시가 축산농가 수익 증대와 자율적 수급 능력 제고를 위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한우 사육농가가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 마리당 지원 단가는 최대 6만원으로 농가당 최대 500두까지 지원한다. 농가는 한 마리당 4만 원만 자부담하면 되며, 총사업비는 880두에 8800 만원이다.

참여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법인은 사업신청서, 시술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시술비 입금 통장사본, 시술수의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이며,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원순위는 한우 암소 브랜드 경쟁력 농가, 한우 암소 비육전문 농가 순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